

Roger Green 박사, 미국 기독교, 세션 28, 복음주의 평가

© 2024 Roger Green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미국 기독교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로저 그린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28, 복음주의 평가입니다.

우리는 그 이름들 중 일부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개요에서 4번과 5번에 있고, 그 다음에 다음 강의를 하겠습니다. 오래 걸리지 않고 현대 세계의 미국 기독교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날 미국 기독교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럼, 다음은 복음주의의 교리입니다.

중요한 교리는 무엇이었을까요? 중요한 교리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무엇을 강조했을까요? 그리고 오늘 고든에서 이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든은 자신을 복음주의 기관이라고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중 일부는 교리이고, 일부는 교리인데, 이것은 복음주의를 진정으로 뒷받침하는 혼합된 것입니다. 좋아요, 첫 번째입니다.

복음주의는 근본주의의 일부, 모든 근본주의의 반지성적이고 반과학적 정신을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근본주의의 일부를 불신하게 만든 반지성주의를 극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주의는 모든 진리가 하나님의 진리라는 사실에 우리가 헌신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 진리가 철학적 진리이든, 수학적 진리이든, 과학적 진리이든, 그것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는 모든 진리의 저자입니다. 그래서 복음주의는 신을 연구하고 그의 세상을 연구하는 데 마음과 마음을 사용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런 종류의 비전에 정말로 전념했습니다. 두 번째로, 복음주의는 성경에 대한 매우 높은 관점, 성경에 대한 높은 관점에 전념했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우리의 비전, 즉 성경에 대한 종교 개혁의 이해, 그리고 위대한 지성과 위대한 마음을 가진 종교 개혁자들이 성경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과 종교 개혁자들의 일종의 해석적 원리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성경에 대한 이런 종류의 새로운 이해가 정말 중요했습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그리고 저는 분명히 여기서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복음주의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성경 구절의 의도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성경 구절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의미하셨고, 저자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특정 구절을 기록했을 때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의도는 무엇일까요? 거기에는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그래서 항상, 그것은 저에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구절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이제, Alistair McGrath는, 그리고 당신은 그의 이름을 충분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매우 매력적인 책을 썼고, 그 책은 *Evangelicalism and the Future of Christianity*입니다.

그러니 여름 독서를 위한 그 텍스트, 복음주의와 기독교의 미래에 대해 격려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알리스테어 맥그래스가 복음주의에 얼마나 중요한지, 복음주의 사상이 무엇인지를 만들어내는 것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물론 그의 책에서 그는 성경과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꽤 많이 다룹니다.

그가 하는 일은 두 가지 주요 원칙이 있고, 그는 이 두 가지 주요 원칙이 성경에 대한 복음적 이해, 즉 성경에 대한 종교 개혁적 이해를 안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맥그래스의 두 가지 주요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원칙은 성경에 충실하려는 견해는 존중해야 하고, 존중받아야 하고,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에 충실하려는 견해는 존중해야 하고 존중받아야 하며, 그러한 견해는 복음주의자들에게 의해 존중받아야 합니다. 심지어 McGrath는 동일한 구절에서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올 때에도 말입니다. 동일한 구절에서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올 때에도 사람들을 존중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복음주의자라면 그 구절에 대한 사람들의 입장을 존중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가 제시한 한 가지 원칙이며, 그는 그것이 성경에 관한 복음주의적 사고를 안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제시하는 두 번째 원칙은 성경이 문제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는다면, 그 문제가 실제로 얼마나 중요한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그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문제에 대한 명확성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복음주의자인 당신은 그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물어보아야 한다고 그는 말합니다. 그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가요? 그래서 그는 성경에 대한 높은 관점을 취합니다. 그는 복음주의자들이 성경 구절을 미로처럼 헤매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원칙이 필요하지만, 성경의 중요성과 성경에 대한 높은 관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복음주의자로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고 있을 뿐이지만, 개인적으로, 특히 웨슬리안 전통에서 온 저는 권위적이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즉, 성경이 권위적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기독교 신앙과 실행에 대한 권위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단어를 좋아하는데, 웨슬리가 기본적으로 성경에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에 대한 권위 있는 책임입니다. 좋아요. 그럼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복음주의의 교리는 성령의 주권입니다. 복음주의는 삼위일체를 우리의 마음에 되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성부와 성자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성령은 어떨까요? 글썄요, 복음주의 운동은 성령을 우리의 초점으로 되돌렸고, 신자의 삶과 교회의 삶에 대한 성령의 주권을 되돌렸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개인적 회심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하는 방식이고 그리스도가 기독교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독교의 심장, 기독교의 중심입니다. 디트리히 본회퍼가 말했듯이, 그리스도는 빵을 먹은 후에 제공되는 진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빵 그 자체이거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이야기의 중심으로 다시 데려오는 것이 여기 있는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개인적 회심에 대한 강조 하에서, 저는 복음주의자들이 매우 조심해야 할 것은 그 개인적 회심을 경험하는 한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주의자들은 역사적으로 사람들이 극적으로 회심하고 그들의 실제 영적 출생일을 말할 수 있는 것에 대해 매우, 매우 염려해 왔습니다.

글쎄요, 어떤 사람들의 삶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개종 경험이 점진적으로 이해되어서, 그들이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님이라고 말할 때까지의 삶의 어느 지점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가 이 개인적인 개종 경험을 모든 사람의 경험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주님이자 구세주로 동일시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보편화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좋아요, 그럼 개인적 회심에 대한 강조입니다. 복음주의에 대한 다음 것은 전도에 대한 우선순위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의 우선순위는 다양하지만 전도의 수단은 다양합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행기를 탈 때 하지 않는 일을 이미 증거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 일부는 비행기를 타는 것이 멋진 기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신의 성격과 당신이 하고 싶은 일에 맞다면, 그것은 아름답습니다. 그것은 전도의 한 방식이며,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전도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수단을 사용하든 말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복음주의를 매우 강력한 사회적 의식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저는 한 가지 이름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저는 그것을 떠나서 다시 돌아올 것 같지만, 매우 강력한 사회적 의식입니다.

영상에서 보셨듯이, 제 친구 밥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선지자들의 마음속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고개를 숙이세요, 알겠어요, 그게 선지자들의 마음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복음주의적 관심과 걱정입니다. 이제, 질문은, 우리가 그것에 충실했는가입니다. 글썄요, 우리는 복음주의의 약점을 살펴보면 그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항상 그랬는지 확신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나중에 그것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은 의심할 바 없고, 강한 사회적 양심도 의심할 바 없습니다. 그러니, 알겠습니다. 제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복음주의의 또 다른 교리는 기독교 진리와 기독교적 헌신이 모든 교파에서 발견된다는 인식입니다.

기독교의 진실과 기독교의 헌신은 모든 교파에서 발견 됩니다. 복음주의와 기독교의 미래에 대한 알리스테어 맥그래스의 요점 중 하나는 복음주의가 진정으로 교파를 초월한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한 교파나 다른 교파에만 위치한 운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교파를 초월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것은 정말로 교파를 초월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복음주의자라고 생각하는 로마 가톨릭 신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복음주의자라고 생각하는 동방 정교회 신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주의는 우리가 모든 교파의 경계를 넘고 모든 것에서 진리를 찾을 수 있다는 인식을 할 수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교회 교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삼위일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하나님 자신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때때로 이상하고 멋진 주변 집단을 많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통파 공동체와 그 단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공동체 내에서의 이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주의는 확실히 교파를 초월하며 다양합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여덟 번째, 복음주의 교리에 대한 마지막 사항은 복음주의가 미래에 대한 자신의 헌신을 분별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주의의 헌신은 무엇입니까? 미래에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Alistair McGrath는 그의 책에서 복음주의가 미래에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비전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이제 그는 공개 강의, 다른 기사 등에서 언급한 세 가지 사항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미래의 복음주의에 관해 생각해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복음주의와 공공 정책입니다. 복음주의자들은 대중의 공공 영역에서 자리를 갖고 있을까요? 그리고 따라서 그들은 공공 정책 결정에서 자리를 갖고 있을까요? 글썄요, 물론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신의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하고, 복음주의자들이 자신을 신의 세상의 청지기로 이해한다면, 복음주의자들은 공공 정책 문제에 관여하는 것을 꺼려서는 안 됩니다. 공동선을 위한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그러므로 복음주의자들은 그것을 꺼려서는 안 됩니다. 복음주의자들은 토론에 참여해야 합니다.

복음주의자들은 토론의 최전선에 서야 합니다. 다양한 문제에 대한 성경적 의견을 표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공공 정책은 그가 이야기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그가 말하는 두 번째 내용은 정통성과 윤리에 대한 문제에 대한 다른 기독교인과의 협력입니다. 우리는 정통성이나 신학, 좋고 명확한 신학에 대한 문제에 대해 다른 신자들과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윤리적 문제에 대해 다른 기독교인들과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 협력이 있을까요? 우리가 손을 뻗을 수 있을까요? 복음주의자들은 다른 기독교인들에게 손을 내밀어 이런 종류의 것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해야 합니다. 또한, 어떤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는 그룹이 그들에게 올 때,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그 토론을 하게 되어 기쁘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다른 기독교인들과의 협력입니다. 저는 수년 동안 제 교단의 국제 교리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국제 교리 협의회는 세계 여러 지역의 우리 교파의 많은 사람들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꽤 다양한 그룹입니다. 제가 국제 교리 협의회에 있었던 몇 년 동안, 두 그룹이 우리에게 와서 윤리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신학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과 아마도 우리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그룹들과의 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제, 첫 번째 그룹은 우리에게 꽤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세계 감리교 협의회라고 합니다. 이것은 전 세계 감리교 교파의 협의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많은 공통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론에서도, 제 말은, 신학적으로 의견이 다른 점은 거의 없었지만, 우리가 이 다양한 감리교 교파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우고 그들이 우리에게 대해 알게 되면서 매우 흥미로운 토론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온 두

번째 그룹은 우리에게 조금 더 흥미로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에 대해 많이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었습니다. 제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삶과 여러분의 삶에서 신학과 윤리에 관해 여러분과 토론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우 흥미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 채 그 대화에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세션은 오래 지속되었고, 때때로 우리는 그들을 우리 본부 중 한 곳으로 초대했고, 그들은 우리를 그들의 세계 본부로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매우,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하지만 제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와 저는 정교회 신학과 기본 복음주의 신학 측면에서 많은 것에 동의했던 걸 기억하지만, 우리가 완전히 동의하지 않는 것도 있었고, 우리는 그들에게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가 그들에게서 배운 가장 흥미로운 것은 아마도 안식일을 존중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세계 본부에 있었을 때, 금요일 12시경에, 그 장소는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서 안식일을 준비해야 했기 때문에 문을 닫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제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밤까지 준비해야 합니다. 그게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안식일 대신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10계명 중 하나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것에 대해 매우, 매우, 매우 친절하며, 집에 가서 식사를 준비하고 금요일 밤에 교회에 갑니다. 그것은 주요 예배입니다. 토요일 아침, 토요일 오후. 그래서 배울 것이 많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그런 종류의 협력입니다.

세 번째는 두 번째와 관련이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더 집중적입니다. 세 번째는 복음주의자들은 로마 가톨릭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우고 있고, 로마

가톨릭교도들은 복음주의자들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바로 이 캠퍼스에서 로마 가톨릭교도들과 복음주의자들 사이에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몇 년 전 일이지만, 복음주의와 로마 가톨릭교, 우리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동의하는 부분,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 부분 등에 대한 토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류의 미래의 헌신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주의의 교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제, 질문이 있나요? 제가 선택한 건, 네, 안나. 그럼, 이것들은 어디에서 온 건가요? 일부는 그렇지만 전부는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그걸 확인해야겠어요, 안나.

그럴 것 같아요. 네, 추측이에요. 아시다시피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쯤일 거예요. 하지만 네, 이 수업이 끝나고 나서 구글링해 볼 수 있어요. 구글링해 보세요. 하지만 잘 모르겠어요.

혹시 그 책을 읽어본 사람 있나요? Alistair McGrath가 쓴 책이나 강의나 다른 걸 읽어본 사람 있나요? Alistair McGrath, Words of Hands? 아니요. 좋아요. 축복합니다.

좋아. 당신은 그를 당신의 독서 목록에 넣어야 해. 당신은 그냥 그렇게 해야 해.

Alistair McGrath의 책 한 권만 읽어도 그는 매우 읽기 쉽습니다. 그는 자신이 훌륭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학자이지만, 그는 모든 사람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를 전달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신이 Alistair McGrath를 읽지 않았거나 Gordon에서 다른 과정을 수강하지 않은 것이 약간 놀랍습니다. 그는 여기서 꽤 여러 번 연설했습니다.

그는 작년 가을에 여기 있었던 것 같아요. 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교리에 대한 다른 질문이 있나요? 이게 바로 복음주의,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고든 칼리지예요.

그럼, 알았어요. 좋아요. 이제, 실례합니다, 복음주의의 약점으로 넘어가죠.

이제, 복음주의의 약점에 대한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약점이 내부에서 지적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주의자들이 복음주의를 비판하는 것입니다.

복음주의는 복음주의를 비판할 외부의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주의를 비판할 만큼 내부에서 매우 단호한 복음주의자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점을 지적합니다.

미안합니다. 이 감기는 낫지 않고, 목소리도 괜찮습니다. 그냥 물을 써서 나를 도울게요.

고맙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지만, 그렇게 하도록 허락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 전통의 풍요로움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교회 전통의 미적 차원, 2000년 동안 하나님의 교회의 위대한 삶과 전례를 의미합니다.

종종 복음주의자들은 그 풍부한 전통을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복음주의자들은 때때로 교회가 오늘 복음주의로 시작했다는 인상을 주고, 아니요, 2000년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잊습니다. 그것은 매우 풍부하고 보람 있는 역사이며, 매우 뿌리가 깊고 훌륭하고 아름다운 역사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했듯이, 저는 종종 이것을 교회의 삶과 교회의 전례에서 발견합니다.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복음주의자들이 많았고 여러분도 알겠지만, 로마 가톨릭교나 동방 정교회로 옮겨간 복음주의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이 옮겨간 이유는 복음주의 공동체에서 자라면서 풍부한 전례와 기독교 역사의 삶을 살지 못했고, 그런 것을 놓쳤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공회, 로마 가톨릭교, 동방 정교회에서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순례를 한 사람들이 많았고, 그것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두 번째는 19세기 복음주의 전통의 사회적 헌신에 충실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제, 피니에 대해 우리가 한 말을 기억하세요. 피니는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과 폐지론자라는 것 사이에 전혀 차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차이가 없다고 보았고, 여기에는 전혀 모순이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같은 복음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19세기에 많은 복음주의자들과 함께 이 나라에서 폐지, 사역에 참여하는 여성,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사회적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어난 일은 도널드 데이튼이라는 복음주의자가 등장해서 *Discovering an Evangelical Heritage*라는 책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는 일은 19세기의 복음주의를 살펴보고 20세기 중반의 복음주의와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정말 중요해지죠. 여기서 한 가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강의 계획서에서 한 가지만 체크하면 됩니다.

이걸 할 때 바로 연락드릴게요. 알겠어요, 수업 후에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9세기 복음주의는 우리가 그 복음주의 유산을 지키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는 매우 통찰력이 있고, 그는 훈련받은 역사가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부에서 나온 두 번째 비판입니다. 그는 내부에서 나온 복음주의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유지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질문은, 우리가 다시 그 문제로 돌아가고 있는가? 글썄요, 저는 모릅니다. 세 번째, 복음주의에서 때때로 지적인 얽박함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마크 놀의 블록버스터 책이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는 마크 놀을 언급했습니다. 마크 놀은 *The Scandal of the Evangelical Mind*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문장, 이건 복음주의자가 복음주의자에게 말하는 내용인데, 첫 번째 문장은 복음주의자들의 정신에 대한 스캔들은 복음주의자가 별로 없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맵소사. 알겠습니다. 좀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그는 옳았습니다.

우리는 지적 숙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 본론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는 좋은 모델이었고, 그것에 대한 좋은 사례였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좋은 모델이자 모범입니다. 역사가로 훈련을 받고, 우리가 언급한 대로 지금은 가르치고, 지금은 노트르담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복음주의의 진짜 약점으로 보고 복음주의자들이 꽤 비판적으로, 꽤 진지하게 생각하도록 자극했습니다.

그래서 *The Scandal of the Evangelical Mind*는 블록버스터 책입니다. 그리고 4번째는 종종 문화에 대한 적응입니다. 그리고 Gordon-Conwell에서 가르치는 David Wells는 은퇴했지만 Gordon-Conwell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웰스는 *The Reality of Truth in a World of Fading Dreams*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책에서 그는 복음주의자들이 문화에 적응하는 것을 정말 질책해서 복음주의자들을 더 넓은 문화와 아주 뚜렷하게 구별할 수 없게 했습니다. 여기에는 구별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구별이 없는 복음주의자들을 꽤 강하게 비판합니다. 우리는 그저 더 넓은 문화에 빠져들었고, 더 넓은 문화를 흡수했습니다. 우리는 더 넓은 문화의 일부이고, 더 넓은 문화에 대해 말하지도, 더 넓은 문화를 판단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주의의 약점은 꽤 강하지만, 모두 내부에서 비롯됩니다.

그게 제가 좋아하는 점이에요. 외부의 사람들이 필요 없어요. 외부에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내부에서 복음주의자들은 싸워야 할 심각한 약점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이 사실을 알아야 하고, 뭔가 해야 한다고 말하죠. 좋아요, 복음주의의 약점에 대해서는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약점에 대한 건 없나요? 우리가 어떻게든 해결해야 할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건 분명 Alistair McGrath의 요점으로 돌아갈 겁니다. 복음주의자들이 공공 정책의 일부가 되어야 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게 되고 있다는 요점이죠. Well의 요점은 그가 복음주의자들을 살펴보았을 때, 우리는 종종 문화에 적응했지만, 문화와 다르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화에 굴복했다고 그는 느낀다. 그래서, 복음주의자들이 공공 정책을 위해 해야 할 일과 우리가 문화를 수용해서 더 이상 문화를 판단할 수 없게 된 부분을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둘은 미묘한 경계선이다. 아마도 때때로 그럴 것이다. 복음주의에 대한 비판에 대한 또 다른 것은, 모두 복음주의자들이 하는 것이다.

좋아요, 18번 강의로 넘어가죠. 강의 요약 17페이지에 제목을 붙였습니다. 우리는 현대 세계의 미국 기독교입니다.

이런 종류의 마무리 강의에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미국 기독교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비판을 모두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그것을 적는 동안, 저는 여기서 한 가지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금요일과 다음 수요일에도 언급했으니 교과서를 모두 가져오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급했잖아요? Rauschenbusch도 기사에 포함시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했어요.

좋아요, 현대 세계의 미국 기독교. 긍정적인 면은 무엇인가요? 부정적인 면은 무엇인가요? 그럼, 다음 월요일에 우리가 당신이 어디에서 왔는지, 이 과정에서 무엇을 배웠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때, 당신은 이 중 일부를 알아차리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실례합니다.

좋아요, 여기에 이름이 있고,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다 처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기에 이름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좋아요, 그리고 아마 이 텍스트들도 처리했을 것 같아요.

도널드 데이튼의 텍스트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스캔본이 있고, 여기 신이 아는 텍스트가 있습니다.

좋아요, 긍정적인 평가. 좋아요, 미국 기독교에 대한 제 히트 퍼레이드에서 1위는 교파의 풍부한 유산입니다. 저는 교파주의를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저는 교파주의를 선물로 봅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가 많은 교파주의를 가지고 있고, 때로는 너무 많은 교파주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교파주의에는 풍부한 유산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종류의 신학적 배경, 민족적 배경, 문화적 배경에서 왔지만, 저는 교파주의의 풍요로움이 미국 생활에서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긍정적인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미국에서, 저는 일반적으로, 제 말은, 일반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공공 생활에서, 미국 교파 생활에서, 미국 기독교 생활에서 서로에 대한 관용이 있었습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제 저는 때때로 개신교도들이 반 가톨릭 감정을 품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흐리려고 하지 않지만, 다른 때에는 가톨릭 신자들도 반개신교 감정을 보였습니다. 그것은 양방향으로 작용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지금은 그 단계를 넘어선 것 같지만, 저는 일반적으로 그런 종류의 관용 정신을 좋아합니다. 또한, 세 번째는 우리가 강한 사회적 양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강한 사회적 양심으로 세상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에 대한 두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예는 여러분이 이미 책을 세 번이나 읽었기 때문에 매우 친숙할 것이고, 여러분은 그 책에서 라우센부시에 대한 모든 정보를 얻고 싶어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완벽한 예는 라우센부시가 아닐까요? 그리고 사회적 복음 운동 전체, 강한 사회적 양심.

그리고 두 번째 예는 물론 Martin Luther King, Jr. 입니다. Rauschenbusch 처럼 그는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입니다. Martin Luther King, Jr. 의 메시지는 그가 교회에서 개발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Rauschenbusch와 Martin Luther King, Jr. 모두의 강력한 사회적 양심은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그것이 거기에 내재되어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제가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 네 번째 사항이며, 우리는 미국 기독교에서 매우 놀라운 사람들을 배출했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몇몇 뛰어난 남성과 몇몇 뛰어난 여성을 배출했습니다. 물론 남성들 중에서는 더 주류에 속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성에 대해 말한 것은 미국 기독교에서 여성들이 종종 사물의 주변에서 일해야 했고, 더 큰

종류의 교파적 삶의 주변에서 영향을 미쳐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 중 일부는 정통성에 영향을 미쳤고, 일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몇몇 남자에 관해서는, 글썬요, 이름을 댈 수 있을 겁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나 월터 라우센부시, 빌리 그레이엄 같은 사람들 말입니다. 우리가 상대하는 여성에 관해서는, 내일은 예를 들어 메리 베이커 에디를 볼 겁니다.

이제, 이 여성은 의심할 여지 없이 상대해야 할 여성입니다. 이 여성은 제 생각에, 제 전통인 에반젤린 부스에서 매우 중요한 여성입니다. 그녀는 미국에서 30년간 목회했습니다. 그러니 미국 기독교 역사에는 의심할 여지 없이 놀라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국 기독교 역사 말입니다.

다섯 번째는, 제 생각에, 대학과 기독교의 관계입니다. 그 이야기는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하버드는 왜 설립되었을까요? 프린스턴은 왜 설립되었을까요? 예일은 왜 설립되었을까요? 다트머스는 왜 설립되었을까요? 그리고 그것은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대학 물결이 다른 방향으로 갔을 때, 19세기에 또 다른 물결의 대학들이 생겨났고, 하버드, 프린스턴, 예일이 한 일을 다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오버린은 미국의 기독교 역사에서 얼마나 중요할까요? 폐지론 기관으로서 매우 중요했고, 찰스 그랜디슨 피니도 마찬가지로였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물결인 셈이죠.

그런 다음, 성경 연구소와 함께 세 번째 물결이 시작됩니다. 대학들이 시작한 일에 대한 믿음을 지키지 못했을 때, 성경 연구소가 있었고, 고든 대학과 배링턴 대학이 일종의 세 번째 기독교 고등 교육 물결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대학과 대학 간의 관계는 기독교에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오늘날의 기독교 대학, 이 세 번째 물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고든 대학이나 배링턴 대학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세상의 다른 곳에는 이런 대학이 없습니다.

이것은 미국 복음주의 기독교 대학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것입니다. 캐나다에는 다소 있고, 조금은 있지만 많지는 않습니다. 캐나다에는 이런 대학이 많지 않습니다.

유럽에서는 보통 미국 전통의 유럽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국적 현상인데, 모든 기독교 대학과 대학교가 분명히 기독교적이고, 그들 중 다수가 분명히 복음주의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풍경에서 새로운 것입니다.

또 다른 긍정적인 점은 전도에 대한 강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첫 번째 대각성, 두 번째 대각성, 피니파 부흥, 무디 부흥, 빌리 그레이엄 부흥에서 우리가 전도에 얼마나 중점을 두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미국의 기독교가 만들어낸 전도에 대한 강조를 생각해 보세요. 물론, 그것은 나머지 세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도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미국 교회가 종종 교회에서 매우 예언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기독교는 종종 매우 예언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미국 기독교인들이 노예 제도 폐지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보세요.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로마 가톨릭에서 성직 안수를 선도하는 것은 미국 여성들입니다.

이제, 저는 제 인생에서 로마 가톨릭 여성이 성직에 임명되는 것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인생에서 그것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일이 잘 되려면 몇 년이 걸리고, 어쩌면 2천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이 잘 되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하지만 선두를 달리는 건 미국 로마 가톨릭 여성들입니다. 그들은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여성을 위한 성직 안수를 원합니다.

사회적 이슈를 진정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 저는 우리가 과정에서 언급하지 않은 한 가지를 언급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중요한 문제를 파악하려고 노력합니다. 저는 보스턴 라틴 스쿨을 언급할 것입니다. 보스턴 라틴 스쿨은 350년 전에 설립되었습니다.

보스턴 라틴 스쿨의 정확한 설립일은 기억나지 않지만, 청교도들이 시작한 공교육이었습니다. 청교도들은 아이들을 위한 공교육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공교육은 교회 전통과 교육에 대한 기독교적 헌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이 미국의 교육이 그런 이유로 기독교인과 함께 시작되었다는 이야기를 결코 듣지 못할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미국 기독교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입니다. 이제, 부정적인 비판에 들어가기 전에, 부정적인 비판으로 끝내고 싶지는 않지만, 어쩌면 우리가 몇 가지에 대해 생각하도록 자극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미국 기독교가 만들어낸 다른 긍정적인 것들이 생각나시나요? 이제 역사, 교파, 사람들에 대해 충분히 알게 되었으니, 미국 기독교가 만들어낸 정말 좋은 것, 정말 도움이 되는 다른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미국 기독교에서 도움이 되고 좋고 긍정적이고 오래 지속되는 일을 무엇을 했나요? 아직 이야기하지 않은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국가가 가르치는 것, 또는 대문자 C로 시작하는 교회가 가르치는 것을 제외하고요. 그리고 그것은 좋은 지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본 것의 많은 부분이 Roger Williams와 같은 사람들로부터 시작하여, 자신의 종류의 사교의 자유를 사용하여, 나는 이것에 얽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런 자유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미국 문화권에 속합니다. 예를 들어, 교파에 대한 생각 말입니다.

또한, 교파는 정통적인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그 안의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당신은 정통적인 것을 붙잡고, 당신은 세속적인 것을 붙잡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게 미국 문화 생활의 일부잖아요. 사상의 자유가 있는 거죠. 그렇죠.

다른 생각나는 게 있나요? 미국 기독교, 우리는 세상에 도움이 되는 것을 무엇을 주었나요? 네, 알렉산더? 선교에 집중하세요. 맞아요. 네.

맞아요. 선교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미국 기독교인들은 기본적으로 우리 역사 전반에 걸쳐 선교를 엄청나게 지원해 왔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선교에 집중하는 건 좋은 지적입니다. 그렇죠. 다른 게요? 미국 기독교, 우리가 세상과 기독교 세계에 준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지 생각하세요? 다른 게 있나요? 우리가 여기서 만들어낸 것에 대한 좋은 생각입니다.

좋아요. 좋아요. 몇 가지 부정적인 비판을 살펴보죠.

여기서 끝내고 싶지는 않지만, 어쨌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기독교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 부정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역사를 통틀어 교회와 국가 사이에 혼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종종 교회와 국가 사이의 매우 복잡한 혼동입니다. 교회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국가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교회와 국가를 함께 섞으면 우리는 미국 생활에서 일종의 시민 종교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저는 미국 생활에서 시민 종교가 어떤 의미에서 매우 정의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회와 국가가 혼동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때때로, 일부 교파는 우리가 그 둘을 혼동하지 않도록 하는 데 매우 능숙했습니다. 침례교회가

그렇습니다. 침례교회의 위대한 전통 중 하나인 로저 윌리엄스는 미국 생활에서 교회와 국가라는 둘을 혼동하지 않는 것을 중시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영역과 기타 등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교회와 국가 사이에 혼란이 있을 수 있으며, 매우, 매우 복잡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또 다른 것은 미국 기독교의 약점인데, 그것은 개인주의에 대한 강조입니다.

이제, 당연히 개인주의에 대한 강조는 우리가 방금 언급했듯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예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개인주의에 대한 강조는 때때로 미국 기독교에서 신체, 교회, 신자 공동체를 소홀히 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유지해야 합니다.

신은 확실히 개인과 함께 일하지만, 기독교는 매우 개인적인 종교이지만 결코 사적인 종교는 아닙니다. 그것은 항상 교회에서, 지역 사회의 신자들의 몸에서 스스로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개인주의에 대한 미국의 강조는 때때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기독교가 예수와 나에 관한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게 기독교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세 번째 것은 어떤 의미에서 혼합된 가방입니다. 미국 근본주의에는 강점과 약점이 있습니다. 미국 근본주의의 약점이 너무 공개된 것은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미국 근본주의는 강점과 약점이 있지만, 약점이 때로는 이겼습니다. 그래서 복음주의가 형성된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 근본주의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정말 독특해요. 기본적으로, 이건 미국 생활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거예요. 미국 근본주의 전통에서 자랐다면, 세계 다른 지역을 여행할 때, 같은 교파 내에서도 이 전통에 대해 잘 알지 못할 거예요.

같은 교파에 속해 있고, 세계의 다른 지역에 가서, 근본주의 교회 교파에서 자랐고, 나머지 세계에 가서, 우리가 하는 일이 이거라고 말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당신이 말하는 것과 항상 동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미국 근본주의의 문화와 사회적 배경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런 지식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지식이 없다면, 그들은 그것이 왜 그런 결과를 낳았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부정적인 것, 그리고 우리는 이미 약점에서 이것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생각하지만, 때때로 전 세계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의 풍요로움에 대한 꽤 근시안적인 관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인들은 자신의 작은 교회나 자신의 작은 교파에 너무 집중하여 역사상 교회의 풍요로움이나 전 세계적으로 교회의 풍요로움을 인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계 교회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세계 교회가 아니라,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전 세계에 사역하고 다양한 전통으로 전 세계에 퍼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좋은 예는 소련이 사람들이 가서 방문할 수 있도록 개방했을 때입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소련으로 간 선교 단체를 알고 계실 겁니다. 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등으로 간 선교 단체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개방되었을 때, 소련으로 가는 선교가 개방되었을 때, 실제로 텔레비전에 나오는 몇몇 단체들은 성경을 러시아어로 번역하기 위해 돈을 요청했습니다. 이제, 거기에는 작은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성경은 천 년 동안 러시아어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성경을 러시아어로 번역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건 꽤 근시안적인 관점입니다. 당신의 관점이 그렇게 폐쇄적이라면, 러시아어로 된 성경이 있고 천 년 동안 존재해 왔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이 번역본을 사람들의 손에 쥐어줘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결코 자신의 언어로 성경을 읽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꽤 근시안적이에요. 꽤 폐쇄적이에요. 미국인과 우리가 기독교에 대해 아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근시안적인 관점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때때로 미국 기독교에서 죄와 악에 대한 매우 낮은 관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와 악에 대한 매우 낮은 관점과 그에 상응하는 우리 자신의 성취에 대한 높은 관점

그리고 저는 교회가 사업 세계를 본떠 만들 때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사업의 사업에 종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사업을 이용해 해야 할 일을 성취합니다.

하지만 사업의 사업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업에 들어가면, 그들이 성취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높은 관점과 죄와 악에 대한 낮은 관점, 또는 우리가 하는 일의 이유에 대한 낮은 관점을 가질 때, 실례합니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에 있는 유명한 교회가 있었는데, 이름은 밝히지 않겠지만, 매우 부유한 교회였고, 사업의 패턴을 따랐고, 죄와 악에 대한 매우 낮은 관점, 개인적 성취에 대한 매우 높은 관점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마침내 곤두박질쳤고, 5천만 달러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부분적으로, 그 교회가 빚을 지게 된 이유는 교회가 자신의 계급에 있는 죄를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교회가 주의, 가시성, 큰 구조물을 짓기 위한 개인적인 필요성 등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미국 기독교에서는 죄와 악에 대한 이런 종류의 낮은 관점이 있었고, 그에 따라 우리 자신의 성취 가능성에 대한 높은 관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확실히, 미국 개신교 내에서, 미국

개신교는 심각한 교리와 신학 훈련과 조사와 삶에서 실제로 쇠퇴했습니다. 그리고 관용은 미국 개신교에서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관용은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중요한 일이죠. 어떤 미국 개신교도들에게는 무엇이든 허용됩니다. 저는 그것에 대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힐드브란트 박사와 제가 거의 매년 가는 회의 중 하나는 아마도 American Academy of Religion과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라고 불리는 회의입니다. 이 두 그룹은 매년 함께 모입니다. 보통 10,000명 정도가 함께 모입니다.

이제, 미국 종교 아카데미가 시작되었는데, 저는 SBL보다 그것에 대해 더 말할 수 있지만, 미국 종교 아카데미는 신학에 대한 매우 진지한 신학적, 학문적 토론으로 시작되었고, 성경 신학에 관한 모든 것이었습니다. 전적으로 개신교는 아니었지만, 개신교가 강했습니다. 하지만 온 가톨릭 신도들과 온 동방 정교회 신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미국 종교 아카데미 회의에 가면 일부 세션에서 정교회 신학을 거의 알아볼 수 없습니다. 사실, 기독교와 기독교 신학에서 너무 멀어서 알아볼 수 없는 세션도 있습니다. 칼 바르트나 디트리히 본회퍼, 복음주의 신학에 대한 진지한 세션과 토론을 여전히 찾을 수 있어서 기쁩니다 .

그래서 여전히 그곳에서 무언가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찾고 싶습니다 . 하지만 성경적 권위나 교회의 권위에서 너무 멀리 떨어진 다른 세션들이 너무 많고, 왜 그들이 여전히 미국 종교 아카데미에 남아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60년대 이후로 미국 개신교 종교의 풍경이 확실히 쇠퇴했습니다. 특히 신학적으로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좋아요, 그게 미국 기독교와 이 과정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할 몇 가지 사항입니다. 그리고 몇 분만, 당신이 느끼는 다른 부정적인 점이 있습니까? 네, 포터.

저는 복음주의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복음주의가 어떻게 복음주의에서 나왔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어떤 사람들을 반 복음주의자라고 낙인찍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네, 좋은 질문입니다.

복음주의라는 용어는 실제로 종교 개혁 당시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주의라는 용어는 종교 개혁 이후로 성경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삼위일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리스도가 이야기의 중심이라고 믿는 기독교인을 말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런 종류의 것들 말입니다. 그리고 교회 역사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용어가 계속 등장해서 예를 들어 18세기의 웨슬리안 부흥은 복음주의 부흥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그 말은, 웨슬리안이 개혁주의적 이해, 성경의 중요성, 은혜와 그리스도의 중요성 등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런 다음, 19세기에 부흥이 일어나면서 복음주의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리고 라우센부쉬는 에반스에 의해 복음주의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복음주의는 40년대에 근본주의와 구별하기 위해 매우 심각하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성경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 그리스도가 필수적이라는 것, 이런 모든 것을 설명하는 용어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는 종교 개혁 이후 교회 역사의 여러 단계에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근본주의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그들이 말했던 대로, 이게 우리가 원하는 용어예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아주 잘 묘사하기 때문이에요. 네. 뭔가 다른 게요.

네. 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여성들이 교회 생활의 주류에 들어가는 데 매우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은 부정적인 비판이 될 겁니다.

이제, 이런 일은 웨슬리안 그룹에서 더 자주 일어나는데, 그들은 남성과 여성의 평등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오순절에 성령이 아들과 딸에게

내려왔을 때 이런 위대한 해방이 있었다고 믿습니다 . 이런 일은 앵글리칸 교회와 같은 일부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앵글리칸 교회에서는 이제 여성들이 사역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맞아요. 미국 기독교의 여성들은 일반적으로 경계에서 일해야 했는데, 주류가 사역에서 여성에게 개방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그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어디로 가는지 볼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맞습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여성들이 기독교 교회에 기여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인정받지 못했다는 부정적인 비판이 될 것입니다.

맞아요. 우리는 수출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수출하는 것도 미국 문화이고, 미국적 가치관, 또는 가치관의 차이, 어떻게 표현하든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전 세계에 수출하는 경향이 있고, 그들이 대화에 기여해야 할 내용을 듣지 않습니다. 사실입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정말 그렇죠.

미국의 예외주의는 문제가 있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했듯이, 선교에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 복음에 대한 문화적 틀 전체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적 틀입니다. 그리고 네, 그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 부정적인 것들. 좋아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 있는 거야? 금요일이야. 책은 다 어디 있지? 글썄, 몇몇은 내일 만나기로 했어. 대부분은 내일 만나기로 했어.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중도하차하거나 추가한다면, 바로 거기에 마지막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내일 금요일에 모든 책을 볼 것입니다. 월요일에 우리는 앉아서 고백할 것이고, 수요일에 모든 책을 볼 것이고, 그 다음 월요일에 시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기독교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로저 그린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28, 복음주의에 대한 평가입니다.